美術史學硏究 第326號 2025. 06. pp. 33-64
http://dx.doi.org/10.31065/kjah.326.202506.002

고려시대 獸爐의 사용 의례와 설치 공간

이용진*

Ⅰ. 머리말
Ⅱ. 『高麗圖經』 속 獸爐의 형상
Ⅲ. 고려시대 왕실 嘉禮와 殯禮의 獸爐
Ⅳ. 고려시대 상원연등회, 중동팔관회의 獸爐
Ⅴ. 고려시대 수로의 설치공간과 사용시기
Ⅵ. 맺음말

Ⅰ. 머리말

『高麗史』와 『高麗圖經』에는 고려시대 의례에 사용했던 獸爐와 관련한 기록이 있다. 수로는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하였던 향로로 수로를 설치하였던 공간은 고려의 궁궐인 만월대의 주요 전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로가 사용된 숫자는 의례의 성격에 따라 달랐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왕실의례가 오례라는 체계 안에서 설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수로에 대해서는 『고려도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수로의 형상과 크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1] 『고려도경』의 수로 관련 기록을 고려시대 의례와 관련하여 언급한 연구도 있었다.[2]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왕실의례에 따른 수로의 사용 공간과 수로의 사용 수량 및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된 수로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없다.

*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조교수

1 고려시대 수로에 대해 언급한 글은 다음과 같다. 장남원,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기명류 연구」, 『역사와 담론』 70 (2014).

2 이용진, 「고려시대 의례와 『고려도경』의 향로」,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수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로에 대한 연구성과가 미진하였던 것은 수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수로는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하였던 향로이고, 자모수라는 동물장식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수로가 고려시대 왕실의례 중 어떤 의례에 사용되었는지와 함께 의례에 따른 수로의 설치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의례에 따른 수로의 사용 수량과 고려시대 수로의 사용시기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Ⅱ. 『高麗圖經』 속 獸爐의 형상

徐兢은 『고려도경』 권30 器皿 1에서 獸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子母獸爐는 은으로 만드는데, 조각하고 아로새기고 하여 만듦새가 정교하다. 큰 짐승이 쭈그리고 앉아 있고, 작은 짐승은 움켜쥐는 형상으로 뒤돌아보며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입으로 향기를 낸다. 오직 會慶殿과 乾德殿의 公會 때에만 두 기둥 사이에 놓는 것으로 迎詔 때에는 麝香을 피우고, 공회 때에는 篤耨·龍腦·旃檀·沈水 등을 태우는데, 그것들은 모두 御府에서 하사한 향이다. 하나에 은 30근을 썼고, 짐승의 형태가 받침에 연결되어 있는데, 높이는 4척이고 너비는 2척 2촌이다.[3]

『고려도경』에 따르면, 수로는 큰 동물과 작은 동물이 장식된 향로로 작은 동물의 입으로 향이 배출되며, 왕실의 공회에 사용하고 은 30근을 사용하여 만든 높이 4척(약 124.8㎝), 너비 2척 2촌(68.6㎝)에 이르는 대형 향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서긍은 기명의 명칭은 獸爐, 기명에 대한 설명에서는 子母獸爐로 언급하였는데, 수로는 당시 고려에서 통용되었던 명칭을 사용했던 것이라면, 자모수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수로에 대한 형상과 크기 등 구체적인 서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로와 자모수로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자모

3 『高麗圖經』 卷30 器皿一 獸爐, "子母獸爐 以銀爲之 刻鏤制度精巧 大獸蹲踞 小獸作攫之形 返視張口 用以出香 惟會慶乾德公會 則置于兩楹之間 迎詔 焚麝香 公會則燕篤耨 龍腦 旃檀 沈水之屬 皆御府所賜香也 每隻用銀三十斤 獸形連坐高四尺 闊二尺二寸."

4 자모수로의 높이와 너비는 장남원, 앞의 논문 Ⅲ장 〈기명의 규격과 재질 및 장식〉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수로는 수로에 대한 도상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도경』 권31 수로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어미와 새끼로 구성된 두 마리의 동물인 子母獸이다. 서긍은 자모수가 어떤 동물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사자로 보는 견해[5]가 있고,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청자주자의 뚜껑에도 사자로 추정되는 자모수가 장식되어 있어 사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활석제 사자장식향로〉 *Talc Incense Burner with Lion*, 843, Tang, H. 24.0cm, Excavated from Tomb of Li Yu, Yanshi Xingyuan, Henan, China (Tōkyō Kokuritsu Hakubutsukan, *Chūgoku: Ōchō no shihō*, Fig. 124)

Fig. 2. 〈납석제 사자장식향로뚜껑〉 *Agalmatolite Incense Burner with Lion*, 9th Century, Unified Silla, H. 16.3cm, Excavated from Wŏlchi Pond, Gyeongju National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5 장남원, 앞의 논문, p. 170.

향로의 뚜껑에 동물이 장식되기 시작하는 것은 唐代로 추정하고 있는데, 9세기 중반부터 활석으로 만든 사자장식향로가 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6] 843년 사망한 李郁 부부의 합장묘 출토 〈활석제 사자장식향로〉가 대표적이고(Fig. 1), 경주 月池 출토 〈납석제 사자장식향로 뚜껑〉 향로를 통해 9세기 통일신라에서도 사자장식향로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Fig. 2). 더불어 『五代會要』와 『冊府元龜』에는 928년 고려에서 南唐에 보낸 은제사자향로에 관한 기록이 있어 928년경 고려에서는 향로에 장식되는 동물로 사자를 활용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7]

월지 출토 〈납석제 사자장식향로 뚜껑〉은 이욱 부부묘 출토 〈활석제 사자장식향로〉와 비교했을 때, 재질만 활석에서 납석으로 바뀌었을 뿐 반원형 뚜껑과 그 위에 장식된 사자의 모습 등이 9세기 전반 당에서 제작한 동물장식향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통일신라의 동물장식향로는 9세기 전반 당대 활석제 동물장식향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Fig. 3. 〈금동사자장식 다족향로〉 *Gilt-bronze Incense Burner with Lion*, 907, Tang, H. 40.1cm, Fujian Museum (Zhejiang Museum, and Famensi Museum, *Xiangyuan yiqing: Tang Song xiangju lancui,* p. 66)

唐代에는 동물장식향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다리가 달린 多足香爐도 사용하였다. 중국의 다족향로는 漢代부터 나타나고, 北周를 지나 唐으로 계승되는데, 당대에는 8세기 전반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당대의 다족향로는 3~5개의 다리가 달린 몸체와 煙空이 있는 뚜껑으로 구성되며, 뚜껑의 손잡이에는 연꽃이나 코끼리 등이 장식되기도 하였다.[9]

중국에서는 10세기에 들어 다족향로와 동물장

6 향로 뚜껑 위에 동물이 장식된 향로는 당대 9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당대 杜牧(803~852)의 시 〈春思〉에는 수로라는 용어가 등장한다(『全唐詩』 第524卷, 11首). 그러나 이 시기의 수로는 『고려도경』의 자모수로와 같이 두 마리의 동물장식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마리의 동물장식이 있는 향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五代會要』 卷30, 高麗, "天成四年八月復遣廣平侍郎張掞等五十二人來朝, 貢銀香獅子銀爐, 金裝版鏤雲星刀劒, 烏突金銀鷹條韉, 白紵, 白氈, 頭髮, 人參, 香油, 銀鏤剪刀, 鉗鈸, 松子等 ……"; 『冊府元龜』 卷972, 明宗 天成4년, "…… 張芬等五十三人來朝, 貢銀香獅子香爐金裝鈸鏤雲星刀劒 ……"

8 이용진, 「韓國 佛教香爐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 70-71.

9 당대의 다족향로 뚜껑에는 향이 빠져나가는 연공을 비롯해 뚜껑 정상부에는 연꽃 형태의 손잡이나 연꽃과 코끼리가 결합된 장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향은 연공을 통해 빠져나가게 만들었다.

식향로가 결합된 새로운 동물장식 다족향로가 나타나는데, 중국 福建博物院 소장 907년 作 〈금동사자장식 다족향로〉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Fig. 3). 이 향로는 五花形의 전이 달린 원통형 몸체에 獸面이 장식된 다족이 있고, 뚜껑 정상에는 웅크리고 앉은 사자가 입을 벌리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 향로의 경우 뚜껑에 연공이 없고 사자의 입을 통해 향연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당대 동물장식향로의 향 배출 방식을 따르고 있다.

宋代에는 사자로 추정하는 산예를 비롯해 기린과 원앙, 오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향로에 장식된다. 북송 洪芻의 『香譜』에는 산예와 기린, 원앙과 오리를 香獸[10]로 부르고 있고, 고려시대의 청자동물장식향로에도 사자와 기린, 원앙과 오리가 장식된 청자향로가 제작되었다. 그런데 이들 동물장식향로에는 한 마리의 동물만 장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려도경』에 언급된 수로에는 두 마리의 동물이 장식되어 있어 당대 이후 동아시아 동물장식향로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모수 도상의 출현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경우 당대 또는 북송대로 추정하지만 당대보다는 늦은 시기일 것으로 생각된다.[11] 중국 북경 고궁박물원 소장 〈백자자모수상〉은 어미 동물의 목에 방울이 달려 있어 당대보다는 오대나 북송대로 생각된다. 다른 예는 북송대 呂氏 가족묘에서 〈백석자모수장식문진〉으로 이것은 향로 이외에 자모수가 표현된 가장 오래된 예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동물장식향로의 뚜껑에 두 마리의 동물인 자모수가 장식되는 것은 고려시대의 수로가 유일하며, 1123년을 전후한 시기 고려를 제외한 주변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고려의 독창적인 조형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처럼 독특한 도상적 특징을 가진 수로의 모습을 서긍의 기록과 당시에 유행했던 향로의 기형을 토대로 수로의 모습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모수로는 높이가 4척, 약 125㎝에 이르기 때문에 높이를 고려하면 긴 다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뚜껑에는 어미와 새끼로 구성된 자모수가 장식되어 있었을 것이다. 서긍은 자모수로의 몸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다족향로의 경우 몸체는 원통형이 많고, 정형향로는 고복형의 몸체를 하고 있어 수로의 몸체는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123년이라는 시기를 고려하면 수로의 몸체는 고복형보다는 원통형의 몸체에 가까웠

10 洪芻, 『香譜』 卷下 香之事 水浮香條, "然紙灰以印香篆, 浮之水面, 爇竟不沈. 香獸以塗金爲狻猊, 麒麟, 鳧鴨之狀, 空中以燃香, 使煙自口出."

11 호영아, 「고려시대 상형청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p. 63. 이 논문에서는 북경 고궁박물원 소장 〈백자자모수상〉과 북송 呂氏 가족묘 출토 〈백석자모수장식문진〉을 소개하면서 〈백자자모수상〉을 설명하면서 어미 사자의 목에 방울이 달려있다고 하였는데, 사자의 목에 방울이 달리는 것은 오대 또는 북송으로 보고 있어 편년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로와 비슷한 크기의 德壽宮 中和殿의 정형향로는 높이 119.5㎝, 너비 72㎝로 자모수로보다는 높이는 조금 낮지만 너비는 약간 넓은 모습이다(Fig. 4). 중화전 정형향로는 고복형 몸체에 수면이 달린 삼족이 달려 있는데, 삼족의 길이는 45.6㎝로 전체 높이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로와 비슷한 크기의 중화전 정형향로를 참고로 하면, 수로도 다리는 전체 높이에서 1/3 정도를 차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리에는 동물장식 또는 수면장식이 있었을 것이다. 몸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원통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뚜껑 위에는 사자로 추정되는 자모수가 장식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Fig. 5). 뚜껑 위의 자모수는 당시의 경향을 반영하여 앙련 위에 놓인 모습으로 추정하였다.

Fig. 4. 〈덕수궁 중화전의 정형향로〉 *Bronze Ding-shaped Incense Burner*, 1905, Korean Empire, H. 119.5cm, D. 72cm, Chunghwajŏn Hall of Tŏksugung Palace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5. 〈『고려도경』 자모수로의 추정 모습〉 *Incense Burner with a Baby and its Mother* as described in *Gaoli tujing* (Digital Rendering by the author)

고려에서는 이와 같은 수로의 자모수 이외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주자〉의 뚜껑에도 子母獸가 장식되어 있고(Fig. 6),[12]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청자모자원숭이연적〉도 원숭이 子母를 모티프로 활용하고 있어 자모수 도상의 활용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Fig. 7).

Fig. 6. 〈청자주자와 승반〉 *Celadon Ewer and Stand*, 12th Century, Koryŏ, H. 27.3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7. 〈청자모자원숭이 연적〉 *Celadon Water Dropper*, 12th Century, Koryŏ, H. 9.8cm, National Treasure, Kansong Art Museum (Korea Heritage Service, https://www.heritage.go.k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주자〉 뚜껑에 장식된 자모수와 간송미술관 소장 〈청자모자원숭이연적〉의 원숭이 자모의 모습은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자모수 장식 기명은 앞에서 살펴본 북경 고궁박물원 소장 〈백자자모수상〉과 북송대 여씨 가족묘 출토 〈白石子母獸文鎭〉의 예가 있어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송 여씨 가족묘 출토품의 하나인 〈卍자문투각장식향로〉의 경우 고려에도 나타나고 있어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13]

1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주자승반〉(덕수990)의 주자 뚜껑에는 웅크리고 앉은 큰 동물과 옆에 기대어 있는 작은 동물이 장식되어 있어 자모수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2018), pp. 93, 321 참조.
13 이용진, 「고려시대 卍자문 透刻香爐 연구」, 『인문과학연구』 47 (2022).

고려와 동시기 주변국의 향로에서도 동물이 장식된 향로를 볼 수는 있지만, 고려의 수로와 같이 향로에 자모수와 같은 두 마리의 동물을 장식하는 것은 주변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고려적인 동물장식법으로 생각된다.

Ⅲ. 고려시대 왕실 嘉禮와 賓禮의 獸爐

1. 고려시대 왕실 가례와 수로

서긍은『고려도경』에서 수로는 會慶殿과 乾德殿의 公會에 사용하고, 두 건물의 중앙 칸 양 기둥 사이에 설치한다고 언급하였다. 서긍이 언급한 회경전과 건덕전의 공회는 왕실의례를 의미하는 것으로『高麗史』에도 수로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4]『고려사』에 따르면, 수로는 왕실의 가례에 주로 사용되고 건물의 御間 기둥 앞쪽에 2개를 설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Fig. 8).

Fig. 8.〈가례시 회경전 어칸 앞의 자모수로(추정)〉 *Incense Burners of a Baby Animal and its Mother in Front of Hoegyŏngjŏn Hall* (Digital Rendering by the author)

14 『高麗史』卷67, 禮志9 元正冬至節日朝賀儀條, "尙舍局鋪王座於大觀殿, 如常儀, 設二獸爐於前楹外左右, 宮設宰臣·樞密次於朝堂";『高麗史』卷67, 禮志9 一月三朝儀條, "前一日, 尙舍局鋪王座於大觀殿上, 如常儀. 設宰臣位於王座東南, 樞密位於王座西南, 俱相向北上. 設二獸爐於前楹外左右";『高麗史』卷68, 禮志10 大觀殿宴群臣儀條, "前一日, 尙舍局鋪王座於大觀殿上, 當中南向, 設便次於王座東少北. 設二獸爐於殿階上左右";『高麗史』卷68, 禮志10 宣麻儀條, "前一日, 尙舍局鋪王座於大觀殿上, 設案於王座南, 設二獸爐於前楹外左右";『高麗史』卷69, 禮志11 上元燃燈會儀條, "小會日坐殿. 前期, 都校署設浮階於康安殿階前. 尙舍局率其屬, 設王幄於殿上, 設便次於王幄東, 設二獸爐於前楹外";『高麗史』卷69, 禮志11 仲冬八關會儀條, "尙舍局設王太子位於王座東南, 西向, 設公·侯·伯位於殿上東西壁, 俱北上相向. 設二獸爐於楹外左右".

『고려도경』과 『고려사』에 언급된 수로가 사용되는 왕실의례는 가례와 빈례이고, 『고려사』의 禮志 구분에 따라 가례는 다음과 같다(Table 1).[15]

〈Table 1〉 〈『고려사』의 禮志 구분에 따른 가례〉 Karye Ritual According to "Yeji" of *Koryŏsa*

Name of Ritual	Items of Karye
Karye	冊太后儀 冊王妃儀 元子誕生賀儀 冊王太子儀 王太子稱名立府儀 王太子加元服儀 王太子納妃儀 冊王子王姬儀 公主下嫁儀 進大明表箋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 望闕賀儀 元正·冬至·節日朝賀儀 元會儀 王太子元正冬至受群官賀儀 王太子節日受宮官賀幷會儀 人日賀儀 立春賀儀 新雪賀儀 宥旨賀儀 一月三朝儀 親祀圓丘後齋宮受賀儀 大觀殿宴群臣儀 老人賜設儀 宣麻儀 東堂監試放牓儀 儀鳳門宣赦書儀 親祀圓丘後肆赦儀 朝野通行禮儀 宰樞謁諸王儀 兩府宰樞合坐儀 六官諸曹官相謁儀 諸都監各色官相會儀 叅上叅外人吏掌固謁宰樞及人吏掌固謁叅上叅外儀 文武員將人吏起居儀 監獄日臺省內侍坐起儀 察使別銜及外官迎行幸儀 外官迎本國詔書儀 外官問聖儀 新及第進士榮親儀 外官出官儀 三品使臣按察使相會儀按廉諸別銜相會儀 兵馬使及軍官拜坐儀 北界營主副使及幕下員相會儀 兩界兵馬使聽行禮儀 外方城上錄事謁宰臣及外官迎宰臣儀 諸道計點使中護評理尹使相會儀 平壤府尹迎觀察使儀 牧都護知州員同坐儀 外官迎兵馬使及兵馬使外官迎銜命宰樞儀 外官遙謝改銜儀 西京官寮加職遙謝儀 防禦員將謁按廉及叅上官儀

『고려사』 예지에는 52개의 가례가 언급되어 있고, 이 중에서 수로가 언급된 가례는 元正冬至節日朝賀儀條, 一月三朝儀, 大觀殿宴群臣儀, 宣麻儀의 4개이다. 『고려사』 예지에 언급된 52개의 모든 가례에 수로를 사용하였을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례의 설행공간에 따라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몇 가지 기록을 통해 수로의 사용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고려사』 권67, 禮志9 元正冬至節日朝賀儀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하루 전에 尙舍局에서는 大觀殿에 王座를 마련하는데, 평상시 의식대로 한다. 앞쪽 기둥 바깥 좌우에 수로 2개를 놓고, 守宮署에서는 宰臣·樞密의 幕次를 朝堂에 설치한다.[16]

15 『고려사』 예지 가례와 빈례는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pp. 333-337 참조.

16 『高麗史』 卷67, 禮志9 嘉禮 元正冬至節日朝賀儀條, "前一日, 尙舍局鋪王座於大觀殿, 如常儀, 設二獸爐於前楹外左右, 宮設宰臣·樞密次於朝堂"

元正冬至節日朝賀儀는 정월 초하루와 동지 및 국왕의 생일에 신하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의례로 상사국에서는 대관전 앞 기둥 바깥 좌우에 각각 하나씩 2개의 수로를 설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대관전은 원래 乾德殿이었으나 1138년 5월 인종이 이름을 새로 짓고 편액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17] 수로를 설치한 상사국은 왕이 임시로 머물 막사, 좌석 등을 설치하는 鋪設의 업무를 담당하였다.[18]

『고려사』 권67, 禮志9 一月三朝儀에도 수로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 하루 전에 尙舍局에서는 大觀殿 위에 국왕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평상시 의식대로 한다. 宰臣의 자리는 국왕의 자리 동남쪽에, 樞密의 자리는 국왕의 자리 서남쪽에 설치하는데, 모두 서로 마주 보게 하고 북쪽을 상석으로 한다. 獸爐 2개를 앞 기둥 바깥 좌우에 설치하고, 재신 · 추밀의 절하는 자리는 궁전 뜰 중앙에 동쪽을 상석으로 하고 북쪽을 향하게 하여 설치한다.[19]

一月三朝儀는 한 달에 세 번 거행하는 조회 의례로 상사국에서 대관전 위에 국왕의 자리를 마련하고, 수로는 앞 기둥 바깥 좌우에 하나씩 2개를 설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卷68, 禮志10 大觀殿宴群臣儀條에도 수로에 대한 기록이 있다.

> 陳設. 期日이 되기 전 都校署와 中尙署에서는 大觀殿 殿庭 남쪽 가까운 곳에 綵棚을 설치한다. 하루 전이 되면, 尙舍局에서는 王座를 대관전 위 중앙에서 남쪽을 향하게 마련하고 왕좌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편차를 갖춘다. 두 개의 獸爐를 대관전의 계단 위 좌우에 나눠 설치하고, 太子座를 왕좌 동남쪽에 서쪽을 향하도록 두며 公 · 侯 · 伯의 자리를 왕좌 동서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진설한다. 宰臣 · 樞密의 자리는 태자와 공 · 후의 뒤에 진열하고 문관 3품 및 承制와 侍臣의 자리는 재신의 뒤쪽에, 무관 3품의 좌석은 추밀의 뒤에 놓는데,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모두 북쪽을 위로 하여 서로 마주보도록 한다.
>
> 尙衣局 · 상사국에서는 왕좌 앞 기둥 사이 좌우에 화안을 진설하고, 茶房 · 尙食局에서는 국왕에게 올릴 御酒 · 御食 · 御果 탁자를 갖추어 놓으며, 여러 신하들이 먹을 주식酒食은 有司에서 관직에

17 『高麗史』 卷16, 世家16 仁宗十六年 5月條, 乾德改大觀.
18 『高麗史』 卷77, 百官志2, 司設署掌供鋪設.
19 『高麗史』 卷67, 禮志9 嘉禮 一月三朝儀, "前一日, 尙舍局鋪王座於大觀殿上, 如常儀. 設宰臣位於王座東南, 樞密位於王座西南, 俱相向北上. 設二獸爐於前楹外左右, 設宰臣 · 樞密拜位於殿庭中心, 北向東上"

따라 준비한다. ……

大宴. 당일이 되면 시각을 헤아려 繖 · 扇 및 仗衛는 殿庭으로 들어가 정렬하고 太樂令은 교방악관 敎坊樂官을 인솔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도록 한다. 協律郞 · 典儀 · 贊者 · 어사御史와 모든 行事執事官은 함께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閤門은 각각 太子와 公 · 侯 · 伯 및 宰臣 · 樞密, 常參官 이상을 인도하여 들어가 聞辭位에 서서 정렬하도록 한다. 시중이 아뢰기를, "外辦"이라고 하면, 왕은 赭黃袍를 입고 대관전에 이르게 되는데, 때에 맞춰 鞭鞘 소리와 함께 향로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른다.[20]

大觀殿宴群臣儀는 대관전에서 여러 신하에게 연회를 베푸는 의례로 『고려사』에 따르면, 대관전연군신의는 진설과 대연의 과정으로 크게 나뉜다.[21] 진설은 대연을 위한 준비과정이고, 대연은 의례의 본 과정이다. 진설 과정에는 도교서와 중상서에서 대관전 남쪽 가까운 곳에 채붕을 설치하고, 대연 하루 전에 상사국에서 왕의 자리를 대관전 위 중앙에서 남쪽을 향하게 마련하고, 두 개의 수로를 대관전 계단 위 좌우에 나누어 설치하였다. 대연 당일이 되면 왕은 자황포를 입고 대관전에 이르는데, 이때 왕의 도착을 알리는 음악과 함께 수로에는 향연이 피어오른다.

이처럼 대관전연군신의는 진설에 대관전 어칸 기둥 양쪽에 2개의 수로를 설치하고, 대연 당일날에는 자황포를 입은 왕이 대관전에 도착하기 전 수로에 향을 피워 왕의 도착과 함께 대관전연군신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은 왕실 가례에 향을 피우는 이유는 왕의 도착과 함께 의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사』 卷68, 禮志10 宣麻儀條에도 수로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하루 전에 尙舍局에서는 어좌를 大觀殿 위에 펴놓고 어좌 남쪽에 탁자를 놓으며 두 개의 獸爐를 앞 기둥의 바깥 좌우편에 설치한다. 또한 조서를 놓는 탁자를 설치하는데, 殿庭의 중심에서 북쪽 가

20 『高麗史』 卷68, 禮志10 嘉禮 大觀殿宴群臣儀條, "陳設. 前期. 都校. 中尙署設綵棚於殿庭近南. 前一日, 尙舍局鋪王座於大觀殿上, 當中南向, 設便次於王座東少北. 設二獸爐於殿階上左右, 設太子座於王座東南, 西向, 設公侯伯座於王座東西, 稍南. 設宰臣 · 樞密座於太子公侯後, 設文官三品, 及承制 · 侍臣座於宰臣後, 武官三品座於樞密後, 每等異位, 俱北上相向. 尙衣 · 尙舍局設花案於王座前, 楹間左右, 茶房 · 尙食局具御酒 · 御食 · 御果案, 其群臣酒食, 有司隨職供辦. …… 大宴. 其日, 量時刻, 繖扇 · 仗衛, 入陳於殿庭, 太樂令帥敎坊樂官, 入就位. 協律郞 · 典儀 · 贊者 · 御史, 凡行事執事官, 俱入就位. 閤門, 各引太子 · 公侯伯及宰臣 · 樞密 · 文武常參以上, 入就聞辭位, 立定. 侍中奏外辦, 王服赭黃袍, 至殿, 鳴鞭, 爐煙升."

21 大觀殿宴群臣儀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김아네스, 「고려 전기 大宴의 정치적 의미-『고려사』 예지 大觀殿宴群臣儀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57 (2019).

까이 북향하도록 한다.[22]

선마의는 고위 관직에 대한 임명 문서인 麻制를 선포하는 의례[23]로 상사국에서 대관전 위에 국왕의 자리를 마련하고 수로는 앞 기둥 바깥 좌우에 하나씩 2개를 설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예지에 언급된 52개의 가례 중 수로를 사용했던 가례는 元正冬至節日朝賀儀, 一月三朝儀, 大觀殿宴群臣儀, 宣麻儀로 이와 같은 가례는 정전인 대관전에서 설행되었기 때문에 수로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52개 가례 항목 중에는 수로를 사용했던 4개의 가례 이외에도 수로를 사용했을 가례가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려사』에 가례의 장소가 모두 언급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로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2. 고려시대 왕실 빈례와 수로

고려시대의 獸爐는 가례 이외에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賓禮에도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빈례에 수로가 사용되었던 것은 『고려도경』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도경』 권25, 受詔에는 송의 사신을 맞아 송 황제의 조서를 맞이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조의 과정은 조서를 영접하는 迎詔, 조서를 인도하는 導詔, 조서를 받는 拜詔로 진행되며, 배조를 할 때에는 會慶殿 궁정에 香案을 마련하고 조서를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 국왕이 조서를 인도하여 회경전으로 들어가니 궁정 아래 香案이 마련되어 있었다. 국왕은 서쪽을 향해 섰고, 정사와 부사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섰고, 상절관들은 서열에 따라 정사와 부사 뒤에 섰고, 고려 관료들은 왕의 뒤에 반차에 따라 섰다.[24]

『고려도경』 권25, 受詔條에는 송의 조서를 받을 때 회경전 궁전 아래에 향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기록하였으나 수로를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려도경』

22 『高麗史』 卷68, 禮志10 嘉禮 宣麻儀條, "前一日, 尙舍局鋪王座於大觀殿上, 設案於王座南, 設二獸爐於前楹外左右. 又設詔案於殿庭中心, 近北北向."

23 김보광, 「고려전기 宣麻儀의 구성과 의례 검토」, 『사총』 97 (2019), p. 40.

24 『高麗圖經』 卷25, 受詔條 拜詔, "國王導詔, 入會慶殿, 廷下設香案, 面西立, 使副, 位北上面南立, 上節官, 以次序, 立於使副之後, 國官立班于王之後."

권30, 獸爐條에는 외국의 사신을 맞이할 때 수로를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고려에서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빈례에는 수로를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서긍은 왕실의 공회에는 2개의 수로를 사용한다고 언급하였지만,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영조에는 수로의 설치 공간과 사용하는 향과 향로가 놓이는 향안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 빈례시에는 회경전 궁정에 놓인 향안에 1개의 수로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1138년 전각명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설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도경』에 언급된 가례와 빈례는 회경전이라는 정전에서 설행되지만, 가례는 왕이 정전 내에 있고, 빈례는 왕이 정전 아래 궁정에서 조서를 받기 때문에 수로의 설치 수량과 위치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가례는 2개의 수로를 앞 기둥 좌우, 빈례는 궁정 아래에 놓인 향안 위에 1개의 수로만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에도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빈례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고려사』 예지 빈례에는 迎北朝詔使儀, 迎北朝起復告勅使儀,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迎, 大明無詔勅使儀 등이 있으나 송의 사신을 맞이하는 빈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迎北朝詔使儀에는 거란의 사신을 맞이하는 과정이 언급되어 있고, 迎北朝詔使儀의 내용과 『고려도경』 권25, 受詔條 拜詔의 절차는 迎北朝詔使儀의 구성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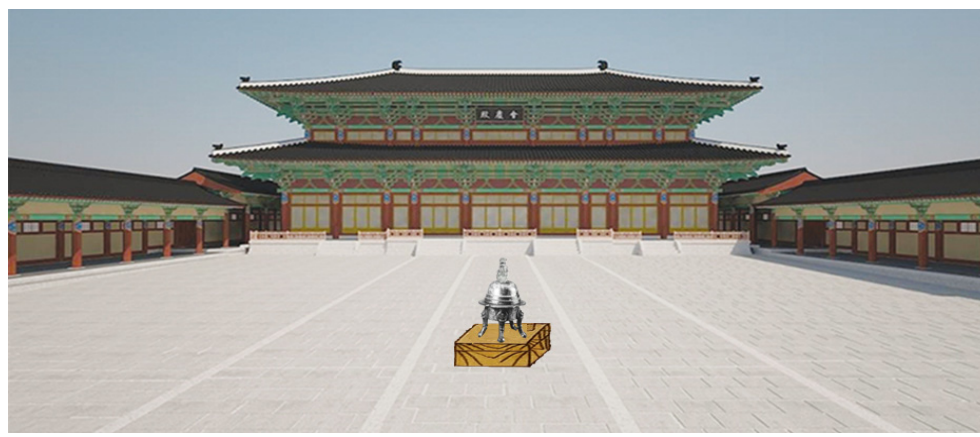

Fig. 9. 〈빈례시 회경전 궁정 안에 설치된 獸爐(추정)〉 *Incense Burners of a Baby Animal and its Mother Placed on a Special Table in the Court of Hoegyŏngjŏn Hall for the Pillye Ritual* (Digital Rendering by the author)

25 정동훈,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위상」, 『역사와 현실』 98 (2015), p. 112.

고려시대빈례의 설행 과정 중 외국의 조서를 받을 때에는 회경전 궁정 아래에 마련된 향안에 1개의 수로를 설치하고 향을 피웠던 것으로 생각되며, 수로의 설치 공간과 수량은 가례와는 달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Fig. 9).

고려시대 왕실의 가례와 빈례에 사용한 수로를『고려도경』과『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왕실의 가례시에는 상사국에서 의례가 설행되는 전각 앞 기둥 좌우에 각각 1개씩 2개의 수로를 설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빈례시에는 의례가 설행되는 궁정에 향안을 놓고 1개의 수로를 설치하고 사향을 소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빈례시 수로의 설치 주체가 가례와 같이 상사국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상사국의 업무로 보아 상사국에서 주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고려시대 상원연등회, 중동팔관회의 獸爐

『고려사』 권69, 禮志23 嘉禮雜儀에는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에 사용한 수로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 小會日 坐殿 그날 이전에 都校署에서는 浮階를 康安殿의 계단 앞쪽에 설치한다. 尙舍局에서는 그 소속 관원을 인솔하여 殿 위에 국왕의 幄次를 갖추고 국왕 악차 동쪽에 便次를 설치하며, 앞쪽 기둥 밖에는 2개의 獸爐를 진설한다.[26]

『고려사』 권69, 禮志23 상원연등회의조에 따르면, 왕실에서 연등회를 설행할 때는 소회일에 상사국에서 강안전 앞 기둥 좌우에 2개의 수로를 설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元正冬至節日朝賀儀, 一月三朝儀, 大觀殿宴群臣儀, 宣麻儀 등의 가례시에는 상사국에서 대관전 앞 기둥 좌우에 2개의 수로를 설치한다고 언급하였지만, 가례잡의인 상원연등회에는 상사국에서 강안전 앞쪽 기둥 좌우에 수로를 설치한다고 언급되어 있어 수로의 설치 공간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

26 『高麗史』 卷69, 禮志23, "嘉禮雜儀 上元燃燈會儀條, 小會日坐殿. 前期, 都校署設浮階於康安殿階前. 尙舍局率其屬, 設王幄於殿上, 設便次於王幄東, 設二獸爐於前楹外."

상원연등회가 설행되었던 강안전은 便殿으로 원래 重光殿이었으나 묘청의 난 이후 1138년 5월 인종이 이름을 새로 짓고 편액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27] 강안전은 고려궁성의 서부 건축군에 위치하는 건물로 여기에는 제2정전인 건덕전을 비롯해 편전인 중광전, 선정전, 침전인 연영전, 자화전, 왕실사묘인 경령전과 궐내 사원인 내제석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10).[28] 또한 고려후기에는 충렬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정전의 역할을 하는 등 고려궁성의 주요 전각 중 마지막까지 사용된 건물이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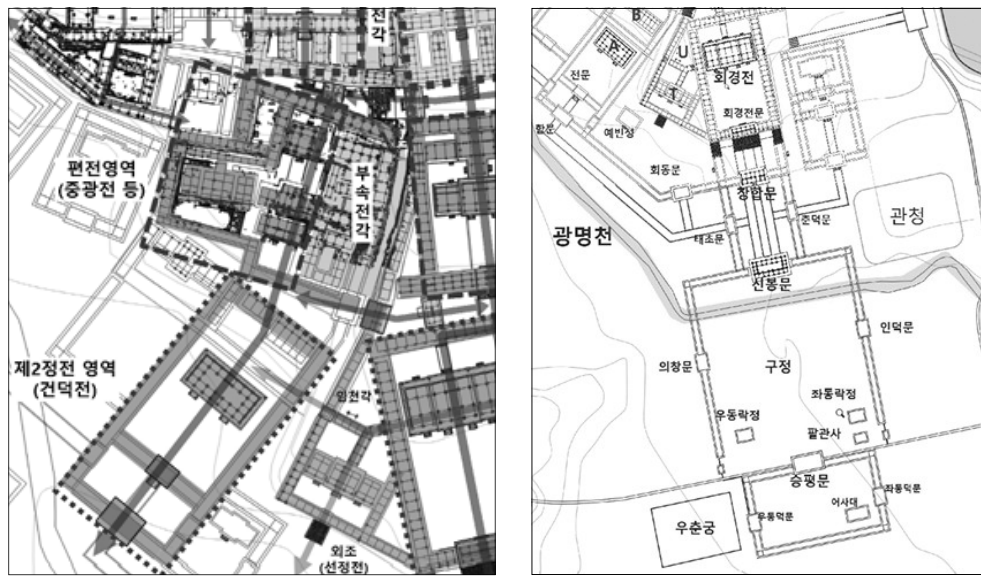

Fig. 10. 〈고려궁성 서부건축군 건물지 위치도〉 Layout of the Western Architectural Complex of Koryŏ Palace (Ch'angkŭn Nam, "Koryŏ pon'gwŏl Manwŏltae chuyo chŏn'gak wich'i wa paech'i ch'egye," Fig. 16)
Fig. 11. 〈고려궁성 중심건축군의 신봉문 일대〉 건물 배치도 Layout of Sinbongmun Gate Area of the Central Architectural Complex of Koryŏ Palace (Ch'angkŭn Nam, "Koryŏ pon'gwŏl Manwŏltae chuyo chŏn'gak wich'i wa paech'i ch'egye," Fig. 3)

27 『高麗史』卷16, 世家16 仁宗十六年 5月條, 重光改康安.
28 남창근, 「고려 본궐 만월대 주요전각 위치와 배치체계」, 『중앙고고연구』 32 (2020), p. 112.
29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元年 八月條, "王受詔畢, 謁景靈殿, 還御康安殿, 服黃袍卽位."

가례잡의인 상원연등회는 소회일과 대회일로 나누어지며, 소회일에 강안전 앞 기둥 좌우에 수로를 설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상원연등회 소회일에는 좌전행사와 태조진전 배알이 주된 행사로 좌전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로를 설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상원연등회를 강안전에서 설행한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전이 아닌 편전이라는 건물의 성격과 함께 소회일의 좌전의식과 태조진전 배알 의식을 설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고려사』권69, 禮志23에는 중동팔관회에도 수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 仲冬八關會儀
>
> 小會. 그날이 되기 전에 都校署에서는 3단 부계를 儀鳳門의 동쪽 전각 계단 아래에 설치한다. 상사국에서는 그 소속 관원을 인솔하고 殿 위에 幄次를 설치하는데, 중앙에 남쪽을 향하도록 하고 어좌를 펴는 것은 평상시의 의례와 같고, 악차의 동쪽에는 便次를 설치한다. 尙衣局에서는 화안花案을 어좌 앞 기둥 사이 좌우에 준비한다. 茶房에서는 果案을 어좌 앞에 차리고 壽尊案을 좌우 화안의 남쪽에 진설한다. 상사국에서는 왕태자의 자리를 어좌 동남쪽에 서쪽을 향하게 놓고 공 · 후 · 백의 자리는 殿 위의 동서벽에 모두 북쪽을 상석으로 하여 서로 마주 보게 설치한다. 두 개의 獸爐를 기둥 밖 좌우에 설치한다.[30]

『고려사』권69, 禮志23 중동팔관회의조에 따르면, 소회일에 도교서에서 부계를 의봉분 동쪽 전각 아래에 설치하고, 상의국에서는 花案, 다방에서는 果案과 壽尊案을 설치하고, 상사국에서 의봉문 동쪽 전각 앞 기둥 좌우에 2개의 수로를 설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중동팔관회 설행은 구체적인 전각 명칭 대신 의봉문 동쪽 전각 앞으로 언급하고 있어 어느 건물 앞에 수로를 설치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의봉문은 원래 神鳳門이었으나 묘청의 난 이후 1138년 5월 인종이 의봉문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31] 의봉문은 고려궁성의 중심건축군에 속하는 공간으로 회경전에 이르는 삼문 중 첫 번째의 문이다(Fig. 11). 이 의봉문의 동쪽에

30 『高麗史』권69, 禮志23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條, "小會. 前期, 都校署設三級浮階於儀鳳門東殿階下. 尙舍局率其屬, 設幄於殿上, 當中南向, 鋪王座, 如常儀, 設便次於幄東. 尙衣局設花案於王座前楹間, 左右. 茶房設果案於王座前, 設壽尊案於左右花案南. 尙舍局設王太子位於王座東南, 西向, 設公 · 侯 · 伯位於殿上東西壁, 俱北上相向. 設二獸爐於楹外左右."

31 『高麗史』卷16, 世家16 仁宗十六年 5月條, "…… 神鳳改儀鳳 ……."

는 건물지가 있는데, 이곳이 중동팔관회를 설행했던 전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동팔관회가 의봉문 동쪽 전각에서 설행되었던 것은 중동팔관회의 의례구성과 관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회일과 대회일로 나누어지는 중동팔관회의 대회일에는 대연회가 열려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려궁성의 가장 넓은 의봉문 동쪽 전각에서 설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례잡의인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는 강안전과 의봉문 동쪽 전각 앞 기둥에 수로를 설치하고 있어 가례시 수로를 설치했던 공간과는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로의 설치 주체는 가례와 같이 상사국이었기에 고려시대 가례와 가례잡의에는 동일한 수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고려시대 수로의 설치공간과 사용시기

1. 수로의 설치공간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한 수로는 의례의 성격에 따라 설치 공간과 수량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가례시에는 주로 대관전 앞기둥 좌우에 2개의 수로를 설치하였지만, 빈례시에는 대관전 궁정 안에 향안을 마련하고 1개의 수로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례잡의인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를 설행할 때에는 강안전과 의봉분 동쪽 전각 앞 기둥에 2개의 수로를 설치하고 의례를 설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왕실의례 중 가례는 고려의 국왕이 의례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국정을 수행하는 대관전이라는 공간에서 의례가 설행되었고, 빈례는 고려의 국왕이 외국의 사신이 가져온 조서를 받는 의례였기 때문에 대관전의 궁정에 수로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가례잡의인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는 국정의 수행이 아닌 국가적 불교의례였기 때문에 대관전이 아닌 강안전과 의봉문 동쪽 전각이라는 공간에 수로를 설치하여 의례를 설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고려시대 왕실의례에 따른 수로의 설치 공간과 수량〉 Installation Locations and Quantities of *Suro* According to Royal Rituals of the Koryŏ Dynasty

No.	Name of Ritual	Installer	Installation Location	Quantities
1	Karye "Greeting Ritual of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元正冬至節日朝賀儀條	Sangsaguk	Taegwanjŏn	2
2	Karye "Three Rituals of the First Month"一月三朝儀	Sangsaguk	Taegwanjŏn	2
3	Karye "Court Banquet for the Various Officials in Taegwanjŏn" 大觀殿宴群臣儀	Sangsaguk	Taegwanjŏn	2
4	Karye "Ritual on the Appointment of Officers" 宣麻儀	Sangsaguk	Taegwanjŏn	2
5	Pillye "Reception of Foreign Envoys "Ritual of receiving the Edict" 拜詔	Sangsaguk	Hoegyŏngjŏn Hall	1
6	Pillye "Welcoming Ceremony for the North Dynasty Envoy Carrying Royal Edicts" 迎北朝詔使儀	Sangsaguk	Hoegyŏngjŏn Hall	1
7	Karyejabŭi "Ritual of Brightening Up Light on February 15th" 上元燃燈會	Sangsaguk	Kanganjŏn	2
8	Karyejabŭi "P'algwanhoe" 仲冬八關會	Sangsaguk	Building on the east side of Ŭibongmun Gate	2

2. 수로 설치 공간의 계승

고려시대 왕실의 가례와 같이 조선시대에도 왕실의 가례를 설행할 때에는 향로를 정전의 앞기둥 좌우에 설치하고 의식을 진행하였다. 『세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납채의주에 "장차 納彩를 행하려면 敎旨로 사자에게 명하고, 이조에서 명령을 받들어 경계한다. 기일 전에 有司가 전하의 자리를 근정전 북쪽 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둘을 앞 기둥 좌우에 설치한다."[32]

음력 8월 달에 예조에서 좋은 날을 선택하여 아뢰고, 먼저 여러 노인들에게 알린다. 그 날이 되면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근정전의 북쪽 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두 개를 앞 기둥 밖에 좌우로 설치한다.[33]

32 『世宗實錄』卷35, 世宗九年 二月八日, "納彩儀注將行納彩敎命使者吏曹承以戒之前期有司設殿下座於勤政殿北壁南向設香爐二於前楹左右."

세종조의 기록이지만, 세종 9년(1427) 및 세종 14년(1432) 왕실에서 가례를 설행할 때 근정전 어칸 양쪽 기둥 앞에 향로를 설치하고 의례를 설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들은 궁중기록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48년 作 戊申進饌圖屛의 仁政殿陳賀圖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처럼 御座는 인정전 북쪽벽에 남향하여 있고, 향로 2개가 앞 기둥 좌우에 설치되어 있다(Fig. 12).

Fig. 12. 〈戊申進饌圖屛 仁政殿陳賀圖〉 *Painting of the Court Banquets in the Musin Year*, 1848, Chŏsun, National Museum of Korea (Photograph by the author)

향로가 놓인 부분을 자세히 보면, 어칸 사이에 녹색과 붉은 색의 천으로 싼 香案 위에 香盒과 뚜껑을 갖춘 정형향로가 놓여있다. 이 그림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 『世宗實錄』 卷55, 世宗十四年 一月七日, "禮曹啓養老宴儀中秋之月禮曹擇吉辰啓聞先戒群老 八十以上 其日有司設殿下座於勤政殿北壁南向設香爐二於前楹左右."

궁궐에 고정식 향로가 설치되는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로 경복궁 근정전의 정형향로와 덕수궁 중화전의 정형향로가 대표적이다(Fig. 13).[34] 경복궁 근정전 좌우에 있는 청동정향향로는 경복궁 중건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1892년에 편찬된 『進饌儀軌』[35] 〈勤政殿圖〉에는 근정전 귓기둥 좌우에 세워진 정형향로가 나타난다(Fig. 14).

이 청동정형향로는 1867년 근정전이 완공되면서 같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36] 1887년 作 丁亥進饌圖屛 勤政殿進賀圖에도 고정식 정형향로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Fig.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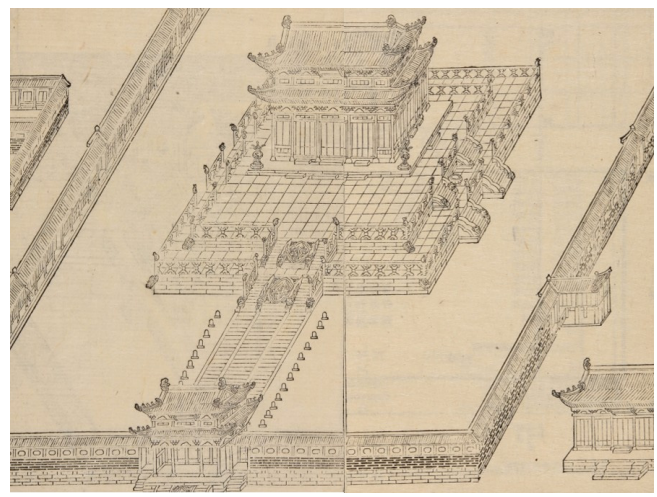

Fig. 13.〈경복궁 근정전의 정형향로〉 *Ding-shaped Incense Burner of Kŭnjŏngjŏn Hall*, 1867, Chosŏn, Kŭnjŏngjŏn Hall of Kyŏngbokkung Palace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14.〈進饌義軌 경복궁 勤政殿圖〉 *Painting of Chinch'an ŭigue in Kŭnjŏngjŏn Hall of Kyŏngbokkung Palace*, 1892, Chosŏn, Kyujanggak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ttps://kyudb.snu.ac.kr)

34 이용진, 「朝鮮後期 鼎形香爐 硏究」, 『동악미술사학』 3 (2002), p. 330.
35 1868년에 편찬된 『進饌儀軌』는 卷首를 포함해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勤政殿圖는 卷首의 圖式에 실려있다.
36 경복궁 근정전은 1867년 완공되지만 경복궁 중건에 대한 의궤가 전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중건 상황은 알 수 없다. 『경복궁 영건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이것은 경복궁 중건 초장기의 기록으로 정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근정전의 정형향로도 근정전이 완공되는 1867년에 같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노현균, 「경운궁 중화전 중층가구 복원계획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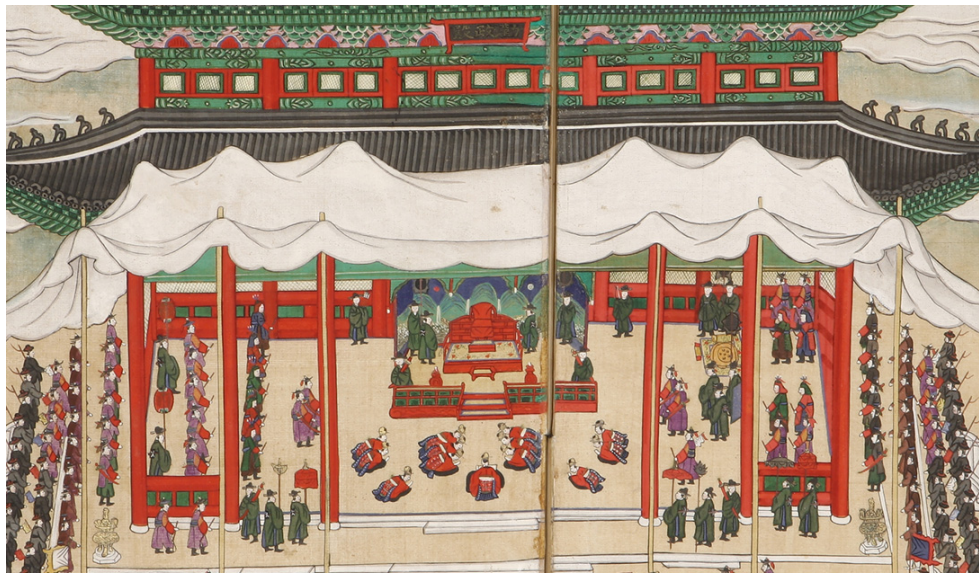

Fig. 15.〈丁亥進饌圖屛 勤政殿進賀圖〉*Painting of Court Banquets in the Jŏnghae Year*, 1887, Chosŏn, National Museum of Korea (Photograph by the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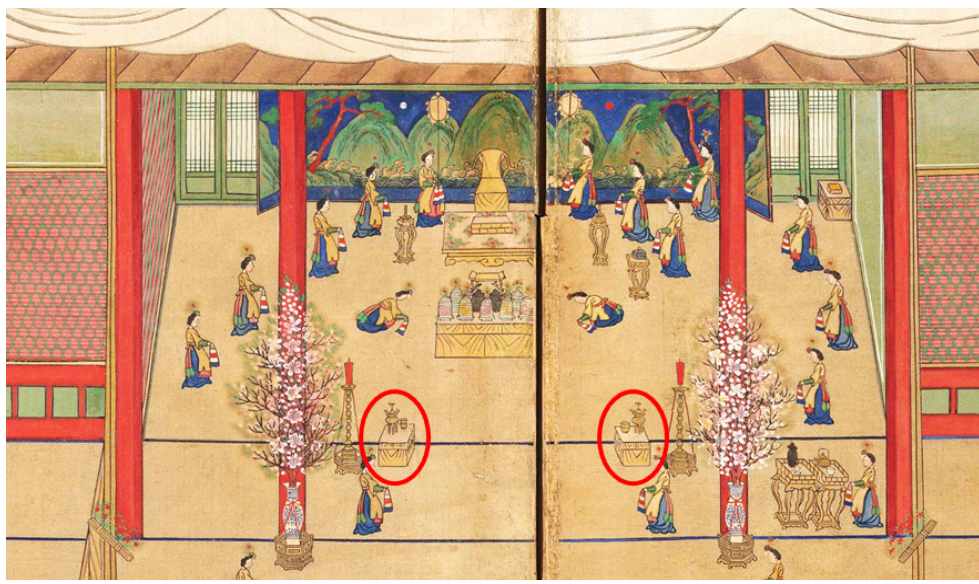

Fig. 16.〈辛丑進饌圖屛 中和殿陳賀圖〉*Painting of the Court Banquet in the Sinchuk Year*, 1901, Korean Empire, National Museum of Korea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17. 〈高宗壬寅進宴圖의 中和殿 정형향로〉 *Ding-shaped Incense Burners in the Painting of the Royal Banquet in the Imin Year*, 1902, Korean Empire, Amore Pacific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덕수궁 중화전의 청동정형향로는 1902년 중화전 중건 때 설치된 것으로 1901년 作 辛丑進饌圖屛의 中和殿陳賀圖에는 단층의 중화전과 함께 중화전 앞 기둥 좌우에 설치된 정형향로가 나타난다(Fig. 16). 어좌를 중심으로 중화전 어칸 사이에 황색의 천으로 싼 香案이 놓이고 그 위에 香盒과 鼎形香爐가 놓여있다. 반면 1902년 作 高宗壬寅進宴圖에는 중화전 양쪽 귓기둥 앞쪽에 정형향로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7). 이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왕실 가례시 정전 어칸 기둥 양쪽에 향로를 설치하고 의례를 설행한 전통은 1901년 대한제국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수로의 사용 시기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했던 수로는 의례 설행시 고려궁성의 주요 전각인 대관전, 강안전, 의봉문 동쪽 전각 등에 설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언급된 수로의 설치 공간은 인종이 1138년 5월 여러 전각과 궁문의 이름을 바꾼 후의 전각과 문 등이다. 그러나 수로는

서긍이 고려에 온 1123년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1138년 인종이 주요 전각과 문의 이름을 바꾼 후에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헌 기록을 통해 수로가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補閑集』卷上「鄭中丞敍雜書, 載崔侍中惟善閨情詩云」에는 侍中 崔惟善(?~1075)이 쓴 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로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37] 최유선은 大平 10년인 1030년 簾前試에서 시를 썼고, 그 시의 내용 중에 獸爐에 대한 언급이 있어 1030년경에 수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고려사』에는 1030년 최유선이 覆試에 급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38]

『보한집』의 기록은 『고려도경』의 수로보다 100여 년 앞선 것으로 11세기 전반경에는 수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로의 사용 연유에 대한 기록이 없어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수로의 사용은 고려의 예제 개혁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예제개혁은 成宗을 시작으로 睿宗, 毅宗代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성되었다. 성종은 성종 2년(983)에 환구제, 적전친경, 신농제를 시행하였고,[39] 같은 해에 제례와 관련된 太廟堂圖, 社稷壇圖, 文宣王廟圖, 祭器圖, 七十二賢贊記 등을 송에서 들여왔다.[40] 성종 7년(988)에는 五廟制에 의거한 종묘제도를 정하고, 성종 8년(989) 태묘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성종 11년(992) 11월에 태묘를 완성하였다.[41] 예종은 예종 8년(1113) 예제개혁을 위한 기구로 禮儀詳定所를 설치하여 고려의 예제를 개혁하였고, 예의상정소에서 정비된 예제는 의종대에 『상정고금례』의 편찬으로 완성된다.[42] 이처럼 10세기 후반에 시작된 고려의 예제개혁은 12세기 중반에 완성되는데,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된 수로는 일련의 예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되고, 그 시기는 최유선 관련 기록으로 보아 1030년경일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수로는 조선 건국 후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왕조실록 『世宗實錄』 卷2 세종 즉위년 11월 9일의 기록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37 『補閑集』卷上「鄭中丞敍雜書, 載崔侍中惟善閨情詩云」, "…… 御苑桃新種, 移從閬苑仙. 結根丹地上, 分影紫庭前. 細葉看如畵, 繁英望欲然. 品高鷄省樹, 香接獸爐烟 ……"

38 『高麗史』 권5, 世家5 顯宗 21年 4月 12日條, "甲午 御文德殿, 覆試, 賜崔惟善等及第."

39 『高麗史』 卷59, 禮志13 吉禮大祀 圜丘, "成宗二年正月辛未王親祀圜丘祈穀配以太祖祈穀之禮始此."; 『高麗史』 卷62, 禮志16 吉禮中祀 籍田, "成宗二年正月乙亥王親耕籍田祀神農配以后稷籍田之禮始此."

40 『高麗史』 卷3, 成宗二年八月, "甲子博士任老成至自宋獻大廟堂圖一鋪幷記一卷社稷堂圖一鋪幷記一卷文宣王廟圖一鋪祭器圖一卷七十二賢贊記一卷."

41 『高麗史』 卷61, 禮志15 諸陵, "成宗七年十二月始定五廟八年四月始營太廟. 十一年十一月太廟成."

42 김철웅, 「고려 전기 祀典의 형성 과정」, 『사학지』 37 (2005), p. 278.

예조에서 中宮을 책봉하는 의식을 아뢰었는데,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하루 전날에 有司에서 임금의 자리를 正殿에 펴서 설치하며, 獸爐 두 개를 앞 기둥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고, 冊案과 印案 각 하나씩을 임금의 자리 왼쪽에 설치하여 동쪽에 가깝게 하고, 侍中과 門下侍郎의 자리를 임금의 자리 동남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시중과 시랑이 모두 행사를 보좌한다.[43]

위의 기록에 따르면, 세종 즉위년인 1418년 예조에서 中宮을 책봉하는 의식을 아뢰는데, 이 때에 임금의 자리를 정전에 설치하고 수로를 앞 기둥 좌우에 설치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고려적인 전통이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궁 책봉 이틀 전인 즉위년 11월 7일 상왕과 대비를 봉숭하는 의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또 壽康宮에 전하의 大次를 外門 안에 설치하되 장소의 적당한 곳을 따르게 하고, 小次를 대궐 동쪽 행랑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책보를 모시는 장막을 대차의 북쪽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문무백관의 문밖 자리를 內門 밖에 설치하여 동서로 서로 마주 대하게 하고, 모두 줄을 겹으로 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상왕의 幄坐를 正殿 한가운데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香爐 둘을 앞 기둥 밖에 설치하고, 전하의 배례하는 자리를 月臺 위의 한가운데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褥位를 악좌의 동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한다.[44]

또 壽康宮에 전하의 大次를 大門 안에 설치하되, 적당한 곳을 따라서 설치하고, 小次를 정전 동쪽 행랑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冊寶를 모시는 장막을 대차의 북쪽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문무의 많은 관원이 문밖에 설 자리를 內門 밖에 설치하여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향하게 하고, 모두 줄을 겹으로 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大妃의 악좌를 正殿 한가운데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香爐 둘을 앞 기둥 밖에 설치한다.[45]

---

43 『世宗實錄』 卷2, 卽位年 11月 9日, "禮曹啓冊封中宮儀曰: 前一日, 司設鋪上座於正殿, 設獸爐二於前楹外左右, 設冊案·印案各一於上座之左近東, 設侍中門下侍郎位於上座東南, 西向北上, 侍中侍郎皆攝."

44 『世宗實錄』 卷2, 卽位年 11月 7日, "禮曹啓上王封崇儀曰: 又於壽康宮設殿下大次於外門內, 隨地之宜, 小次於殿東廊西向, 設安冊寶幄於大次之北南向, 設文武群官門外位於內門外, 東西相對, 俱重行北上. 設上王幄坐於正殿當中南向, 設香爐二於前楹外, 設殿下拜位於月臺上當中北向及設褥位於幄坐之東西向."

45 『世宗實錄』 卷2, 卽位年 11月 7日, "又啓大妃封崇儀曰: ……又於壽康宮設殿下大次於大門內, 隨地之宜, 小次於殿東

『세종실록』에 따르면, 즉위년인 1418년 11월 7일의 상왕과 대비의 봉숭 의식에는 향로를 사용하였고, 중궁의 책봉에는 수로를 사용하고 있어 1418년에는 향로와 수로를 같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왕과 대비의 봉숭의식과 중궁의 책봉의식에 다른 향로를 사용한 것이 왕실 내의 위계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418년이라는 시점에는 고려적인 수로와 조선의 향로가 왕실 가례에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로의 설치 위치는 고려와 동일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19세기 경복궁 근정전에 고정식 정형향로가 설치되기 전까지 고려적인 전통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46]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했던 수로는 정확한 사용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록상 1030년경에는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서긍이 고려에 온 1123년을 비롯하여 인종이 고려궁성의 주요 전각과 문의 이름을 고친 1138년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새로운 왕조인 조선에서도 건국 후 일정 기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세종 즉위년인 1418년경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VI. 맺음말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된 수로는 가례와 빈례에 사용되었다. 『고려사』에는 가례인 元正冬至節日朝賀儀, 一月三朝儀, 大觀殿宴群臣儀, 宣麻儀를 설행할 때는 포설을 담당하였던 상사국에서 정전인 대관전에 국왕의 자리를 마련하고 대관전 앞 기둥 좌우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수로를 설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왕실의 빈례시에는 의례가 설행되는 회경전 궁정에 향안을 놓고 1개의 수로를 설치하고 사향을 소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례잡의인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는 강안전과 의봉문 동쪽 전각 앞 기둥에 수로를 설치하고 의례를 설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되었던 수로는 가례시에는 대관전과 같은 주요 전각의 앞 기둥 좌우에 각각 하나씩의 수로를 설치하였고, 가례잡의의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에는 설치공

廊西向, 設安冊寶幄於大次之北南向, 設文武群官門外位於內門外, 東西相向, 俱重行北上。設大妃幄座於正殿當中南向, 設香爐二於前楹外."

46 이용진, 앞의 논문 (2019), p. 197.

간이 강안전과 의봉문 동쪽 전각으로 바뀌었지만, 앞 기둥 좌우에 각각 하나씩의 수로를 설치한 것은 동일하였다. 반면 빈례시에는 회경전 궁전에 향안을 놓고 수로를 설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왕실의례에 따라 설치공간과 수량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왕실 가례와 빈례에 사용되었던 수로는 기록을 통해 1030년경에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선 건국 후에도 세종 즉위년인 1418년 중궁 책봉의식까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세종 즉위년에는 상왕과 대비의 봉숭의식에는 향로를 사용하고 있어 1418년에는 수로와 향로가 공존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로의 설치 위치는 고려시대 왕실의례의 수로 설치와 동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례가 설행되는 전각의 앞 기둥 좌우에 향로를 하나씩 설치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1867년 경복궁 근정전에 고정식 정형향로가 설치되면서 바뀌었다.

고려시대 왕실의례용 수로는 긴 다리와 원통형의 몸체 및 자모수가 장식된 뚜껑으로 구성된 향로이고, 이처럼 자모수가 장식된 향로는 동시기 주변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고려적인 향로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제어(keywords)_수로(獸爐, incense burner of mother animal and her son), 가례(嘉禮, royal weddings and other congratulatory rites), 빈례(賓禮, reception of foreign envoys), 상원연등회(上元燃燈會, Ritual of Brightening Up Light on February 15th), 중동팔관회(仲冬八關會, chungdong p'algwanhoe), 대관전(大觀殿, Taegwanjŏn Hall)**

▌투고일 2025년 5월 3일 | 심사개시일 2025년 5월 11일 | 심사완료일 2025년 5월 25일 ▌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補閑集』
『世宗實錄』
『全唐詩』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洪芻, 『香譜』

2. 한국어 문헌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2018.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2019.
김병인, 「『고려도경』에 비친 고려인들」,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김보광, 「고려전기 宣麻儀의 구성과 의례 검토」, 『사총』 97, 2019.
김아네스, 「고려 전기 大宴의 정치적 의미-『고려사』 예지 大觀殿宴群臣儀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57, 2019.
김철웅, 「고려 國家祭祀의 體制와 그 특징」, 『한국사연구』 118, 2002.
남창근, 「고려 본궐 만월대 주요전각 위치와 배치체계」, 『중앙고고연구』 32, 2020.
노현균, 「경운궁 중화전 중층가구 복원계획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용진, 「고려시대 의례와 『고려도경』의 향로」,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_____, 「韓國 佛敎香爐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장남원,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기명류 연구」, 『역사와 담론』 70, 2014.
정동훈,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위상」, 『역사와 현실』 98, 2015.
최몽룡, 「高麗圖經에 보이는 기명 연구」, 『한국문화』 6, 1985
최응천, 「『고려도경』에 보이는 고려시대 공예의 양상과 특질」,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3. 동양어 문헌

東京国立博物館, 『中国: 王朝の至宝』, 2012.
王自力, 「獅子香薰」, 『故宮文物』 232, 2002.
浙江省博物館·法門寺博物館, 『香遠益清-唐宋香具覽粹』, 北京: 中國書店, 201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考古二隊, 「河南偃師市杏園村唐墓的發掘」, 『考古』 1996-2期, 1996.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Hong Chu. *Xiangpu*

Koryŏsa[History of Koryŏ]

Pohanjip

Quan Tang shi

Sejong sillok[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Xu Jing. *Xuanhe fengshi Gaoli tujing*

Xuanhebogotu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ang, Namwŏn. "Sŏnhwa pongsa *Koryŏ togyŏng* ŭi kimyŏngnyu yŏn'gu." *Yŏksa wa tamnon[History and Discourse]* 70 (2014): 165-203.

Ch'oe, Mongryong. "*Koryŏ togyŏng* e poi nŭn kimyŏng yŏn'gu." *Hanguk munhwa* 6 (1985): 63-73.

Ch'oe, Ŭngch'ŏn. "*Koryŏ togyŏng* e poi nŭn Koryŏ sidae kongye ŭi yangsang kwa t'ŭkchil." *Han'guk chungsesa yŏn'gu[The Journal of Korean Medieval History]* 55 (2018): 141-174.

Chŏng, Tonghun (Jung, Dong-hun). "Koryŏ sidae sasin yŏngjeŏp ŭirye ŭi pyŏndong kwa kukka wisang[Changes in the Goryeo government's protocols of greeting foreign emissaries, and shifts in the "Image" of the Goryeo state that accompanied such changes]." *Yŏksa wa hyŏnsil* 98 (2015): 103-140.

Han, Chŏngsu. "Koryŏ sidae kukka ŭirye ŭi sŏrhaeng kwa t'onghap ŭisik[The Hosting of State Rituals in the Goryeo Dynasty and Integration Consciousness]." *Han'guk chungsesa yŏn'gu[The Journal of Korean Medieval History]* 55 (2018): 319-360.

Kim, Anes. "Koryŏ chŏn'gi Taeyŏn ŭi chŏngch'i chŏk ŭimi-*Koryŏsa* Yeji Taegwanjŏn yŏn'gunsinŭi rŭl chungsim ŭro[Political Significance of Grand Banquets in the Early Goryeo]." *Han'guk chungsesa yŏn'gu[The Journal of Korean Medieval History]* 57 (2019): 185-220.

Kim, Ch'ŏlung (Kim, Cheor-ung). "Koryŏ kukka chesa ŭi ch'eje wa kŭ tŭkching[Organ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Ritual of the Koryŏ Dynasty]." *Han'guksa yŏn'gu[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118 (2002): 135-160.

Kim, Pogwang. "Koryŏ chŏn'gi Sŏnmaŭi ŭi kusŏng kwa ŭirye kŏmt'o[Restoring Ritual on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ing Officers in the Koryo Dynasty]." *Sach'ong* 97 (2019): 37-79.

Kim, Pyŏngin. "*Koryŏ togyŏng* e pich'in Koryŏindŭl[Goryeo people shown in *Goryeo Dogyeong*]." *Han'guk chungsesa yŏn'gu[The Journal of Korean Medieval History]* 55 (2018): 77-114.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National Museum of Korea). *Tae Koryŏ, kŭ ch'allan han tojŏn[Goryeo: The Glory of Korea]*. Sŏ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2018.

Kungnip munhwajae yŏn'guso. *Koryŏ togyŏng sumŭn kŭrim ch'atki*. Taejŏn: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19.

Lee, Yongchin. "Han'guk pulgyo hyangno yŏn'gu." PhD diss., Dongguk University, 2011.

_____. "Koryŏ sidae ŭirye wa Koryŏ togyŏng ŭi hyangno." In *Koryŏ togyŏng sumŭn kŭrim ch'atki*, 190-201. Taejŏn: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19.

Nam, Ch'angkŭn. "Koryŏ pon'gwŏl Manwŏltae chuyo chŏn'gak wich'i wa paech'i ch'egye." *Chungang kogo yŏn'gu[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32 (2020): 105-140.

No, Hyŏnkyun. "Kyŏngun'gung Chunghwajŏn chungch'ŭng kagu pogwŏn kyehoek yŏngu."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00.

3.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Tōkyō Kokuritsu Hakubutsukan (Tokyo National Museum). *Chūgoku: Ōchō no shihō[China: Grandeur of the Dynasties]*. Tōkyō: Tōkyō Kokuritsu Hakubutsukan, 2012.

Wang, Zili. "Shizi xiangxun." *Gugong wenwu* 232 (2002): 66-83.

Zhejiang sheng bowuguan (Zhejiang Museum) and Famensi bowuguan (Famensi Museum). *Xiangyuanyiqing-Tang Song xiang ju lan xui[Incense Vessels of Tang Song dynasty of China]*. Beijing: Zhongguo shudian, 2015.

Zhongguo shehuikexueyuan kaogu yanjiusuo kaogu er dui (The Second Henan Archaeological team). "Henan Yanshishi Yuan cun Tang mu de fajue[Excavation of Tang tombs at Xingyuan Village, Yanshi County, Henan]." *Kaogu* 2 (1996): 1-24.

국문초록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된 수로는 왕실의례 중 가례와 빈례에 사용되었다. 가례시에는 상사국에서 정전인 대관전 앞 기둥 좌우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수로를 설치하였고, 빈례시에는 회경전 궁정에 향안을 놓고 1개의 수로를 설치하고 사향을 피웠다. 가례잡의인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는 강안전과 의봉문 동쪽 전각 앞 기둥에 좌우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수로를 설치하고 의례를 설행하였다,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했던 수로는 의례의 성격에 따라 설치공간과 수량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왕실의례에 사용하였던 수로는 기록을 통해 1030년경에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선 건국 후에도 세종 즉위년인 1418년 중궁 책봉의식까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세종 즉위년에는 상왕과 대비의 봉숭의식에는 향로를 사용하고 있어 1418년경에는 수로와 향로가 공존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로의 설치 위치는 고려시대 왕실의례의 수로 설치와 동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왕실의례용 수로는 긴 다리와 원통형의 몸체 및 자모수가 장식된 뚜껑으로 구성된 향로이고, 이처럼 자모수가 장식된 향로는 동시기 주변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고려적인 향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Usage Rituals and Installed Places of *Suro* (incense Burner with a Baby and its Mother) in the Koryŏ Dynasty

Lee, Yongji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itual use and spatial placement of beast-shaped incense burners (獸爐, *suro*) in the royal ceremonies of the Koryŏ dynasty (918-1392), focusing on their ceremonial functions and architectural positioning. These distinctive incense burners were primarily employed during two categories of state rituals: *karye* (family rites) and *pillye* (receptions for foreign envoys). In *karye*, a pair of *suro* was symmetrically placed on either side of the main pillars in front of *Taegwanjŏn*, the central ceremonial hall. In *pillye*, a single *suro* was set on a fragrance table (*hyangan*) in the courtyard of *Hoegyŏngjŏn*, where musk incense was burned. In auxiliary rites such as *Sangwŏn Yŏndŭnghoe* (Lantern Festival of the Upper Monastery) and *Chungdong P'algwanhoe* (Mid-Autumn Festival of the Eight Offerings), two *suro* were installed to the left and right of the eastern pavilions in front of *Kanganjŏn* and *Ŭibongmun*. These cases illustrate that the number and placement of *suro* varied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tructure of each ritual, reflecting a deliberate correspondence between ritual form and spatial arrangement.

Documentary evidence suggests that *suro* were already in use by around 1030 and continued to appear in royal rituals into the early Chosŏn dynasty. Notably, during the investiture of the queen consort in 1418—the first year of King Sejong's reign—*suro* were still in use. That same year, *hyangno* (traditional incense burners) were employed in the enthronement ceremonies of the Retired King and the Queen Dowager, indicating the coexistence of *suro* and *hyangno* at this transitional juncture. Interestingly, the spatial placement of *hyangno* followed the same pattern established for *suro* in earlier Koryŏ court rituals.

The *suro* used in Koryŏ royal ceremonies were incense burners crafted in the form of animals—typically featuring long legs, a cylindrical body, and a lid adorned with *chamosu* (mother-and-child beast) motifs. Such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rt History, Dongguk University

zoomorphic designs are not found in contemporaneous incense burners of neighboring states, underscoring the distinctly Koryŏ aesthetic and ritual identity embodied in the *suro*.